

#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상반기까지 통합

### 시·도 합의 추진... 도의회, 통합 검증 돌입

### 이건철 전발연 원장 임기 통합시까지 연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번수는 남아있다. 지난 2007년 광주와 전남이 행정 체계와 발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강조돼 분리된데다 최근 대구·경북발전연구원마저 분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광역시와 그 배후지역인 도가 발전연구원을 개별 운영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올 상반기 내에 상생과제인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16일 시·도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광주시도 조만간 해당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1차 본회의나 2월6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 시·도는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시·도발전연구원 청산·해체과정을 거쳐 통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6월말까지 통합 작업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최근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시·도발전연구원 통합에 대한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차원에서 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에 명확히 파악하고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뒤 통합연구원 소재지, 통합원장 선임, 기금 규모(광주 82억원·전남 164억원)

조정 등의 민감한 안전을 협의할 방침이어서 통합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의 기한은 전남도가 상정한 일정으로, 전남도의회에서의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발전연구원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오는 24일까지인 이견철 원장의 임기를 발전연구원의 통합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발전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인데다 통합을 앞두고 전남발전연구원의 신인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문순태 칼럼

근자에 나는 영화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 작년 가을 <안녕, 헤이즐>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올해 들어서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국제시장>을 보면서 평평 흘렸다. 존 그린의 베스트셀러 소설 <잘못은 우리별이야>가 원작인 <안녕, 헤이즐>은 감상선암이 폐까지 전이되어 사한 부 인생을 살고 있는 16세 소녀 헤이즐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헤이즐이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먼저 죽자, 생전에 약속대로 조사를 읽은 대목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안녕, 헤이즐>이 16세 소녀와 17세 소년의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라면, 다큐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89세 할머니와 98세 할아버지의 삶과 이별의 이야기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내용이다. <안녕, 헤이즐>이 아직 인생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몇 달 동안의 짧은 사랑 끝에 죽음으로 이별을 했다면,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76년을 부

표현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슬픔, 기쁨, 감동 등 감정의 변화로 눈물이 나온다. 특히 슬플 때 눈물을 많이 흘린다. 슬픔의 극치는 죽음을 직면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아닌가 싶다. 내 오래된 문우 이성부 시인이 세상 떠나기 1주일 전에 만났을 때도 “70을 살았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한 줄기 눈물을 보였다. 여자들이 잘 우는 것은 섬세한 감성 때문에 쉽게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실컷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어 마음이 평화로워 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아플 때나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영영 울 필요가 있다. 울고 싶으면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된다. ‘우는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다.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 고도 하지 않는가. 눈물은 빠져진 자성과 함께 자기 쇠신력을 키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 나를 울린 슬픈 영화 3편

부루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할머니 혼자 외롭게 남는다. 젊은이들의 짧은 사랑과 76년의 긴 사랑의 무게는 차이가 없게 느껴졌다. 노부부의 삶이 오히려 부럽기까지 했다. 비록 죽음이 이들을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놓았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메시지가 가슴을 쳤다. 최근에 본 <국제시장>은 70대 내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겪은 이야기로, 6.25 이후 아픈 역사를 관통한 아버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영화 미학적으로 수작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아픈 자화상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억될만한 영화다. 나는 이산가족 찾기 대목에서 많이 울었다. 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 때도 엄청 울었다. 그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것과,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내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빠진다면 이제 슬픈 영화는 보지 않겠다고 했다. 늙으면 눈물샘이 마른다고 하는데, 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 역시 요즈막에는 막장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주 눈물을 흘린다. 눈물은 인간만이 갖는 아름다운 감정

힘을 갖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단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신랑 신부는 첫날밤에 서로 눈물단지를 보여주며 “당신을 만나기까지 이만큼 눈물을 흘렸노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 사람들은 눈물로 잠재의식의 부정성에 대한 자기정화(自己淨化)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는 가짜 눈물도 많다.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를 불사하면서 눈물단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우리는 오바마와 푸틴, 고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도 보았다. 그러나 정치가의 눈물도 다 공감하지는 않는다. 눈물에는 가식이 없지 않지만, 네로의 눈물은 눈물의 진정한 가치를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눈물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바울이 처형을 앞두고 감옥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흘린 눈물은 고결하기까지 하다. 볼테르는 눈물을 ‘슬픔의 또 다른 언어’라고 했다. 나는 눈물이란 진정한 영혼의 진액(津液), 히로에라의 투명한 결정체(結晶體), 치유의 묘약(妙藥)이라고 말하고 싶다. <소설가>

### 호남미래포럼 26일 신년인사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한갑수·상임운영위원 김성호)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5 신년인사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지병문 전남대 총장, 서재홍 조선대 총장, 광주·전남 언론사 대표 등 광주·전남 출신 사회지도층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등 전북출신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원익기자 cki@



IS, 일본인 살해 위협 동영상 공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몸값 2억 달러를 72시간 안에 내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로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일본인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 씨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後藤健二)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황색 옷을 입고 등장하며 검은 복장에 목면을 쓴 인물이 흥기를 들고 서 있다. 일본 외무성은 영상이 IS에 의해 제작된 것인지 등 실체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호남대서 열린다

#### U대회조직위, 다음달 3~13일

저소득 국가 청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을 키우고 차세대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이 광주에 펼쳐진다.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주최하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me)이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호남대학교 관산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분쟁지역 및 저개발국가 18~25세 청년들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르고, 커뮤니티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소통의 자리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3년부터 UNOSDP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월 카타르 도하를 시작으로, 독일 헤네프(2012년 6월), 스위스 마필랑(2012년 10월) 등 매년 4개 대륙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광주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에는 북한 청소년 4명을 비롯해 19개국 33명이, 지난해는 16개국 33명이 참가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분쟁지역 및 저소득국가 15개국 청년 32명이 참가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 임용 공무원 여성이 절반

#### 5급 이상 간부는 10% 미만

#### 승진 인사 여성 우대키로

전남도 공무원 여성 임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중은 크게 낮아 전남도가 당분간 승진인사에서 여성을 발탁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870명 중 여성은 420명으로 48.3%를 차지했다.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은 2010년 31.4%, 2011년 36.4%, 2012년 46.4%, 2013년 4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직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 전남도청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총 389명 중 31명)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8.8% 이상, 내년까지는 10% 이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승진인사에서 여성을 우대해 관리직 비율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1일자로 단행한 5급 승진·전보인사에서도 농업기술원 강정과 농업연구사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농업연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승진 후보자 순위 2배수 이내에 포함되면 어용이면 여성을 발탁 승진시킬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의뢰: 2013-GN1-10-0067  
※이 제본은 '제본가'이며, '제본가'의 주위사항과 '제본가'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 · 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 · 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1,2,3'**   **맥소 '애비오'**   **맥소 '스코프'**   **맥소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 · 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견정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 · 가격 · 시범테스트  
상담 · 검사 · 구입 · 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 · 전남 062)430-8900  
순천 · 여수 061)741-4880  
전북 · 전주 063)251-4999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장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달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릉(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지금 상담중...!

# 1599-9040